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사랑의 확증"
성경	로마서 5:1-10
일시	2017년 12월 17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로마서 5:1-10)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요약 자료♣

사랑의 확증 (로마서 5:1-10)

1.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 1)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창세기 3:15)
 - 2)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창세기 6:14)
 - 3) 가나안 땅 언약을 주셨습니다.(창세기 12:3)
 - 4) 피 계사 언약을 주셨습니다.(출애굽기 3:18)
 - 5)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이사야 7:14)
 - 6)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6:16)
2.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 1)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 2)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8)
3. 그 이유가 있습니다.
 - 1)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로마서 3:10)
 - 2)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6-17)
 - 3)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로마서 5:8)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능력 자료♣

• 오늘은 2017년 12월 17일이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들으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있고 체질화 되어 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것도 똑 같은 예배라고 생각한다. 결코 '그 날'이 아니다. 제 생애에 언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나 하면 '새 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 가졌을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은 여김없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진실히... 솔직히 고백 했을 때 하나님을 저는 알게 됐다. 그리고 제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복음이란 무엇 인지를 그 말씀에 직면 했을 때... 내가 아무 대답 없고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때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또 교회 사역을 한참 맡아서 사역하고 있던 중에 내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일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내가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2017년 12월 17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확신한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내일... 성공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다. 우리 어린 램넌트로부터 우리 인생 오래 사신 어른들까지 이 시간 함께 예배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말씀으로 전하겠다.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문체가 시작이 된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 그 놓친 결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다. "너희를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뜨려버린 사탄의 권세를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아담과 하와가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저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그 약속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잃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한 것이 아예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땅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길은 하나 밖에 없었다. 홍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멸망하려고 할 그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바로 재앙과 홍수에서 건짐 받을 '방주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언약을 또 잃어버렸다. 흠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였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 벽돌을 쌓고 그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들어내자."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때에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해 주신다.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야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리고 한 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언약을 놓쳐버린다. 언약을 놓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노인 될 때까지

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밖에 없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들에게 이 고통은 계속됐다. 아침에 아마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마 사는 것보다 죽는게 나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것.'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그 약속의 피를 온 가족이 붙잡으라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과 백성들과 모든 후대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고 피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다. 그리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 근데 솔로몬 임금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엔 유다가 있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언제 받은 줄 아는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왕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연합한 북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 공격 소리를 듣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그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아하스 왕의 두려움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 증거... 증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나라와 함께 하겠다." "너희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약속을 안 붙잡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웃나라... 큰 강대국 '앗수르'의 힘을 빌렸다. 앗수르의 힘을 빌려서 북쪽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러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 그 때부터 고통이 시작 된다. 앗수르는 그 때부터 남쪽 유다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보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이 후에 계속 '중'이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약속의 증거가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로마에 또 속국이 돼 버렸다. 포로가 돼 버렸다. 그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마어마한 말이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방주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십니다. 희생의 피에 주인공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 약속을 말씀으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됐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었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없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사망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받는 길'...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길' 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리고 '방주의 언약'과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겠는가? 그리고 왜 피를 흘리셔야 되며... 왜 임마누엘 하실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문제이다. 여러분... '원죄'라는 게 언제 들어나겠는가? 원죄라는 이 문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몰랐다. 아담이 몰랐다. 또 아브라함도 몰랐다. 이삭과 야곱도 몰랐다. 이 원죄를 알게 된 것이 언제냐? 바로 모세 때부터 알게 된 것이다.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원죄임을 알게 됐다.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원죄가 뭔지 모른다. 지금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본인의 문제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제 2017년이 지나고 나면 2018년을 맞이하게 된다. 새해를 맞이 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이 원죄 아래 묶여서 살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 또 다른 고통이 계속 될 것이다. 벗어날 길이 없다.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이 원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원죄는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붙잡히는 것이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육신적인 세상 것에 길들여진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런다. 모든 사람이 죄인 이라고. 이들에게 임할 것은 재앙 밖엔 없다. 이런 원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오는가? 하나님이 빠져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만한 힘이 우리에게겐 없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비밀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그 분이 '사망'을... '죄'를... '저주'를 끝내버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뭐만 있는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진 서론이다.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오늘 로마서 1장과 4장까지는 바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된다. 오늘 로마서 5장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 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란다. 이미 다 끝났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사망권세를 깨뜨리셨다.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다. 이 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예배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증거한다. 자... 5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다. 같이 읽겠다.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5장 1절에 **"...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은 아무도 누구로부터 정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 자 이제

구원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부터 여러분이 누리야 될 축복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원수’이었다. 하나님하고 등을 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 근데 이 모든 죄의 벽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려버리셨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죄의 벽을 누가 허무르셨는가? 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신 분이 계신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벽을 다 깨뜨려버렸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 또 말씀하고 계신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 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 그 행복이 지금도 계속 되는가? 저의 별명이 있다. 제 이름은 이응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본다. 저를 보면서 굉장하... “참 젊다.”면서 칭찬을 많이 한다. 어떨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사역자로 제가 초청을 받아 갔었다. 근데 그 때는 저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그 교회에 가지를 못했다. 이사를 못 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계속 강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근데 한 처녀가 저를 미래의 남편감으로 꿈을 꿔다. 저를 볼 때마다 ‘와!~ 저분이 바로 내 미래의 남편 될 사람이야.’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멀리 있었던 제 아내와 두 자녀가 이사를 왔다. 그리고 주일 날 가족이 만났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자녀들입니다.” 나중에서 그 처녀가 얘기했다. “내가 속았다.”고. “내가 잘못봤다.”고 여러분... 그 때부터 제게 별명이 생겼다. 제 이름은 이응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 하더라. 같은 교역자로 있었던 한 분이 제게 이름을 지어줬다. “목사님은 이응남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남’입니다. ‘행남.’” ‘행복한 남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행남 목사’로 알려졌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리스도를 알고나서부터이다. 구원받은 후부터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부터 저는 행복을 계속 누리게 됐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똑같다. 이전에는 ‘원수’요 ‘죄인’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 여러분은 ‘행남’이요 ‘행녀’이다. 행복한 여자. 행복한 렌던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행복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축복이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것만이 아니라 그 행복을 즐기라고. 2017년이 어쩐던 간에 2018년부터는 여러분이 이 행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란다. 그 행복만 누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또 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 자, 5장2절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다.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꼭 거쳐야 될 것이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있다. 양을 잡아야 하고 소를 잡아야 하고 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목욕

도 해야 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두려움에 떨어서 이 것... 예배역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늘 예배가 두려웠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회장 가운데... 있던 모든 회장이 다 끊어져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셨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저~기 들어 올 때 저 문 앞에서 막 불안해 떠셨는가? 들어오실 때 혹시 ‘들어갈 도 될까? 말까?’ 주저하면서 밖에서 이려고 계셨던 분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열린문이다.’ 그냥 쫓히고 들어왔지 않은가? 이르든 늦든 상관없지 않았는가? 문을 활짝 켜고 달려 나왔지 않은가? 구약에 그러면 맞아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히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 올 수 있었던게 뭐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주의 성전에 담대히 들어오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예배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찬양을 통해 누리고, 기도를 통해 누리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성도간에 교제로 확인하고, 우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축복을 여러분이 2017년도에 회복하시고 2018년도에는 정말 마음껏 ‘예배의 감격’을 매주, 매일 누리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치고. 혹시 어려움과 환란 중에 계신 분이 있는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는가?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는가? 혹시 경제를 잃어버린 분이 있는가? 심지어는 가족이나 사람을 잃어버린 분이 있는가? 그걸 이름하여 우린 ‘환란’이라고 한다. 정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사람으로... 또 물질로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환란이라고 한다. 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환란이 올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짜증’이 나올 것이다. ‘원망’이 나올 것이다. ‘불평’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막 미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짜증이 많다는 증거다. 원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거다. 환란은 바로 여러분이 ‘짜증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 나는 짜증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원망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환란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시는가? 다르게 아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바라 보라.”라는 것이다. 환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소망’이라고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망을 걸었다가 사기 당한 적 많죠? 여러분... 돈에다가 소망을 걸었을 때에 많이 잃어버렸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품었는데 그게 어느날 물거품이 되는 날이 있지 않았는가? 그건 ‘참 소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다. 자... 오늘 성경을 확인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성경은 분명한 증거로 알려주신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다. 자 같이 읽겠다.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경에 환란이 결국은 목적하게 어디라고 두는가? ‘소망’이다. 그 환란을 오히려 즐거워 한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의 근원자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 이 응남 목사
부 목사 : 이 응남 목사
연 락 처 : (832)858-4885, (281)815-5361
자료작성 :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

인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라. 큰 환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셉이 환란 가운데 즐거워 했는가? 불평했는가? 다윗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불평 했는가? 즐거워 했는가? 바울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원망 했는가? 힘들어 했는가? 성경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있었음을 분명히 얘기한다. 그러나 그 환란을 이들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환란을 즐거워 했다.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이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외치고, 내 귀로 들어 여러분의 뇌에, 생각 속에 각인하시기 바란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환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어마어마하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란을 당한 자가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이다. 바로 "환란은 가볍다."고 한다.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 하시고 누리길 원하신다. 환란은 눈에 보이지만 그건 잠깐이라고 하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다. 오늘 전 로마서 5장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다 우리는 끝났다. 죄 문제 이제는 해결 됐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는 해방 됐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 받은 내가 이제부터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바로 로마서 5장은 그걸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 믿음을 결코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평을 이룬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란을 즐거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 그 증거를 '성령'으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주의 날에 오늘 주신 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어제 메시지를 준비 한다고 주일 메시지를... 위성 메시지를 못 들었다. 거의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고 끝날 즈음이었다. 그 때 이제 거실에서 류광수 목사님의 위성 메시지가 들리더라. 딱 갔는데... 마지막 결론이더라. 그래서 앞부분은 못 들었다. 그런데 결론에서 딱 이런 말씀을 주셨다. "참 복음'가지고, '참 믿음'가지고, '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이러시더라. 바로 그리스도는 '참 복음'이시다. 그리스도를 믿는게 '참 믿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참 된 용기'를 여러분이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환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두려워 하지 않는 것 아닌가? 2018년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겠는가? 두려워할게 없다. 강하고 담대하여 주께 나아가는 것이다. 늘... 혼자 있을 때 기도도 누리시고, 가족이 함께 누리시고,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2018년도를 또 출발 해야 된다. 올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 하시기 바란다.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는지. 참 된 신앙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내게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 하면서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2018년도를 맞이할 준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